월요광장

상대가 힘들 때 잘해 주자

문 요 한
정신과 전문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이야기이다. 중산국(中山國)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는데 그만 음식이 부족하고 말았다. 모두 양고기 탕을 먹었지만 유독 사마자기(司馬子期)의 몫이 없었다. 그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 그날로 초(楚)나라에 망명을 했다. 그리고 초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중산국을 치게 만들었다. 중산국의 수도는 함락되었고 중산국 왕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낯선 사내 둘이 나타나 사마자기의 화살과 칼을 막아 내고 왕을 구해 주었다.

중산국 왕은 너무나 고마워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물었다. 두 사내는 예를 갖추어 말했다. "저희 부친이 배고픔에 쓰러졌을 때, 왕께서 지나가시다가 찬밥 한 덩어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찬밥 한 덩어리가 죽어 가던 부친을 살리셨습니다. 부친께서는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유언으로 만약 중산 왕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산왕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돕는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는 것도 크고 작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에 있었구나. 그런데 왜 그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나는 양고기 국물 한 그릇으로 나라를 잃었고, 찬밥 한 덩어리로 목숨을 구했구나."

그렇다. 사람 마음이란 묘하다. 큰 잘못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큰 도움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관계의 크고 작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에는 작은 일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도움에도 은인이 된다. 언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힘들 때이다.

오래 준비한 취직 시험에 떨어져서 친한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일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해 놓고 밤늦게 연락이 안 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 양수가 터지고 첫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이 일 때문에 바로 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원망스러움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는데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한 동료들이 모두 그 일에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강한 배신감에 휩싸인다. 사실 그럴 때가 아니라면 별 일 아니듯 넘어갈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에는 상대방의 작은 비판이나 실수 혹은 무심함이 모두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고 만다.

왜 그럴까? 사람이 힘들면 '애착욕구'와 '의존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도 아무도 모르는 낯선 상황에 놓이거나, 심신의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다가가 교감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진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동물은 스트레스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하지만 고등동물 특히, 인간은 그러한 기본 반응 외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함께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처하려고 한다.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양면성이 있다. 애착욕구와 의존욕구로 인해 관계욕구가 커지지만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즉,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작은 거절이나 비판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는 연인의 만남과 이별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성적으로 끌려서라기보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누군가 위로가 되어 주었기에 연인이 된 경우도 많고 역으로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까운 인간관계는 참 어렵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잘해 주었는데 상대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그를 대했던가? 반대로 내가 힘들 때 그는 나에게 어떻게 대했던가?" 우리는 서로 힘들 때에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무심했거나 충고와 비판을 일삼지 않았던가!

인간관계의 핵심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고, 상대가 필요할 때에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힘들 때 잘해 주는 것은 평소 잘해 주는 것의 열 배 효과가 있고, 힘들 때 못하는 것은 평소 잘못하는 것의 100배 상처를 준다. 상대가 힘들 때 잘해 주자!

법조칼럼

경청하는 판사

임 주 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몇 년 전 어느 고등법원에서 법원장님을 보필하는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법원에서 근무한 지 8~9년 정도 되던 해였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태여서 법원장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지방 방송사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고등법원장님이 섭외가 되셨는데, 명사들이 좋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였다.

고등법원장님을 모시는 입장이므로 좋은 책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나였기에 참으로 난감하였다.

그러자 당시 고등법원장님께서 이 책 어떻겠느냐고 하시면서 건네주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이라는 책이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기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주인공 이청은 귀머거리 베토벤과 같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주장만을 내세우며 회사생활을 하기에 이토벤이라고 불린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회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죽기 전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제작하게 된다.

자신과 같이 까칠하고 고집불통들만 모인 팀에서 암으로 인해 점점 청력을 상실해가는 주인공은 바이올린 제조 전문가인 팀원들의 말을 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눈이나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다양하고도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법정에서 짧은 시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당사자와 증인 등을 모두 합하면 최소한 수천 명은 만나지 않았을까 싶다. 그들 대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하고 판사의 말을 들은 다음 법정 문을 나선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판사의 거듭된 설명과 제지에도 다른 사람의 재판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 판사가 뭐라고 묻든지 질문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을 반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판사로 임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는 그러한 당사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 했었다. 재판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고, 절차가 그렇게 정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중간자인 판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도 아무 말도 듣고자 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당시에는 당사자들의 논리적이지 못한 말보다는 논리정연한 법전이나 해석서, 대법원 판례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다.

시간이 더 흘렀다고 해서 스스로가 과거보다 더 훌륭한 판사가 됐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만큼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스스로 위로해본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이건, 질문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는 증인이건,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자 노력한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이고 최소한 본인들이 판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충분히 했다는 만족감이라도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내가 판사라는 이유로 쉽사리 오만한 분별심을 작동시켜 당사자의 이야기에 담장을 쌓지는 않아야겠다는 의지도 다진다. 혹시 거기에 진실이 숨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수년 전 고등법원장님께서 경청이라는 책을 건네신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이미 20여 년 전에 걸었던 선배로서 후배인 나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자도 나이 6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의 말에 자연스럽게 귀를 열게 되는 이순(耳順)에 이르렀다고 하니 나로서는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끝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싫으니 이제 그만하라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그들의 말을 이해하였기에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내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기 고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한다

이 상 홍
조선대 병원장

언제부터인가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더니, 이제는 '9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학업을 포기한 세대)란 조어까지 거론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저 웃고 지나가기에는 슬프기만 한 현실이다.

왜 결혼은 물론 건강과 학업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된 것일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급격하게 성장해온 산업시대를 겪으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 등 질보다는 양적 위주의 성장 기조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처럼 소득 및 양적 성장 주도형 일자리 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광주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일자리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모델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질 개선과 적정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타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주 보고 듣는다. TV나 신문에서 노·사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노조 측의 강경 파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로 대변되는 귀족노조는 지금도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 노동자가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대부분의 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측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의 불평등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노동시간 단축·노사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한다. 기업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자 운동이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민-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존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만 가지고는, 대타협은커녕 사회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일컫는 이른바 '보이는 손'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민-관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모두에게 이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산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만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 ▲일자리 개선 ▲원하청 및 협력업체간 관계 개선 등의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상생협력 기조를 닦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광주시가 오랜 협의 끝에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등으로 일자리 개선을 이끌어 내고, 최저임금을 생활 임금으로 전환한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협동조합을 설립 등 이런 경우 역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정의 핵심인 '더불어'를 표방하여,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을 잘 알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사회의 갈등지수(0.72)는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하게 된다면,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이 실현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문화 또한 변할 수 있고, '투쟁'으로 일원화하는 노동운동의 방향도 점차 변화할 것이다.

갈택이어(竭澤而漁)처럼 앞날은 생각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다면, 현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표출되는 사회 전반의 모순점은 다음세대에 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며 대화와 연대, 상생과 나눔, 공감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광주형 일자리에서 찾기 바란다.

社 說

사라지는 근대 건축물 보고만 있을 건가

구도심 재생의 핵심 자원이 될 광주지역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헐리고 있다.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문화의 집약체이자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산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장동에 위치한 옛 광주여고 건물도 최근 철거됐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족한 주차장을 외곽에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1923년에 개교해 조만간 100년 역사를 맞이할 유서 깊은 건물을, 600여 면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흔적조차 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1943년 12월 건립돼 호남권 최초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의 맥을 이은 충장로 5가 옛 조흥은행 건물도 최근 매각돼 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일방직과 일신방직은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중앙·계림·수창 초등학교와 전남여고 등도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근대 건축물은 광주 곳곳에 널려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존 및 활용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야 용역을 발주해 도시 재생 거점 시설물을 조사했으나 광주여고 건물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

물론 오래된 근대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 중 교육자원이나 관광 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큰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실태조사부터 보호·관리 로드맵 등 기본 틀을 먼저 짜야 한다.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면, 이를 살리는 것이 재산권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건축물 외관은 유지하면서 내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일본처럼 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DJ센터 "주차할 때 어쩐지 좁다 했더니"

차를 가지고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를 방문해 주차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애로를 느낀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차에서 내리느라 진땀을 빼며 "왜 이리 좁지?" 의문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 비밀이 밝혀졌다.

일부 주차면이 정해진 주차면 규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적인 주차장의 면적보다 좁게 돼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을 어겼음에도 어떻게 준공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당시 건설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난 2005년 9월 6일 개장한 센터는 총 주차대수 1502대. 한데 지하주차장 내부 기둥을 중심으로 일부 주차선의 폭이 2.15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 12월24일부터 시행중인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면 규격으로 폭 2.3m, 길이 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이후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경우 전체 주차면의 70%는 일반형(너비 2.3m, 길이 5m)을, 30% 이상은 확장형(너비 2.5m 길이 5.1m)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DJ센터와 달리 광주시 등 타 공공시설과 백화점 등 민간 시설 20여 곳의 경우 주차 규격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용객 배려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주차 규격보다 넓게 조성한 곳도 있었다.(광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상 주차장은 폭 2.3m, 지하주차장은 2.55m였다)

최근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DJ센터 관계자는 "지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주차면 4개를 확보하다 보니 좁게 시공한 듯하다"고 인정하고 전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제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침묵 권하는 사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제외한다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목적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회의는 서너 갈래로 나뉘었던 좌중의 의견이 갑론을박을 통해 한 개의 최종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합의 또는 여론 도출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잘 알려진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다수 의견과 같다고 생각되면 자신 있게 겉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만, 비주류나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침묵한다"는 것이 골자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1970년대에 제시한 '여론 형성 이론'인데, 모든 이론이 그렇듯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발표된 지 5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이 이론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나름의 시각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해 낸' 통찰(insight)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론 형성 과정에서 승리나 패배는 옳고 그름에 달려 있지 않다. 여론의 힘이란 결국, 수많은 개인들의 '두려움 가득한 침묵'에서 나온다." "사회에서 '진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보수'가 침묵하고, 반대로 '보수'가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진보'가 침묵한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고 패배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침묵한다. 따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의 견해는 실제보다 더 강해 보이고, 그 반대 의견은 더 약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신문과 방송 외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수많은 SNS가 작동하는 요즘 세상에선 여론 형성 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꼴통보수'라는 특정 성향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일베족'들이 '맘에 안 드는' 진보 진영을 벌떼처럼 공격, 여론을 왜곡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는 불건전한 사회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